

구애·질투·결투... 흥미진진한 '짜짓기'

광주 우치동물원 '애정촌'

■ 얼룩말
"왜 내 신랑에 꼬리쳐"
여지 없는 '뒷발차기'

■ 반달가슴곰
암컷 두마리 놓고 수컷대결
승자독식에 패자 우리 떠나



얼룩말



반달가슴곰



몽구스

지난해 10월 27일 광주 우치동물원엔 경사가 났다. 그랜트 얼룩말 한쌍이 몸무게 20kg의 새끼 한 마리를 낳았다. 얼룩말 한쌍의 뜨거운 부부애를 통해 귀여운 새끼가 탄생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우리 안에 수컷 한 마리와 암컷 두 마리가 있는데, 마치 모 방송 프로그램의 '짝 애정촌'처럼 수컷 한 마리를 놓고 암컷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기 때문이다.

수컷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암컷은 우리 안 유일한 수컷인 남편의 눈길을 끌기 위해 온갖 교태를 부렸다. 수시로 다가가 살갑게 굴면서 적극적인 스킨십으로 수컷의 마음을 살살 녹였다. 반면 경쟁자인 또 다른 암컷에선 신랑 옆에 가지 못하게 표독

스럽게 굴었다. 자신이 짝어놓은 수컷에게 다가가면 눈을 흘기며 나비처럼 날아가 여지없이 뒷발차기를 날렸다. 이렇게 적극적인 암컷의 구애로 결국 둘은 사랑에 빠졌다. 짜짓기에 실패한 암컷은 애정촌의 외톨이가 되면서 나 홀로 풀을 뜯는 신세가 됐다.

반달가슴곰 우리에선 수컷·암컷 두 마리씩 네 마리가 지내고 있다. 녀석들은 같은 우리에서 생활하며 짝을 찾기 위해 서로 탐색하고 경쟁했다. 번식 기간 동안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차지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인 이들 중 수컷 한 마리는 번식기 내내 이성의 선택을 받지 못할까봐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이 수컷은 경쟁

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 전락을 찼다. 강한 힘으로 암컷 두 마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로 한 것이다. 이 수컷의 전략이 먹혀 들어 결투에서 패한 상대 수컷은 쓸쓸히 애정촌을 퇴소했다. 우리를 떠난 이 수컷은 해양동물사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

우치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몽구스는 모두 5마리(수컷 2마리·암컷 3마리).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이들의 경쟁도 치열했다. 신경전 끝에 암컷을 차지한 수컷은 단 한 마리. 나머지 한 마리는 자진 퇴소 대신 경쟁자가 낳은 새끼를 돌보며 와신상담(臥薪嘗膽)하고 있다. 공동 생활을 하는 이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지만 언제

든지 전세를 역전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설욕을 다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애정촌의 총장인 사육사들은 각 동물의 짜짓기 철만 되면 고민에 빠진다.

한 우리에서 지내면서 짜짓기에 성공한 동물은 종 보존이라는 기쁨을 누리지만 강자존의 높은 벽만 실감한 채 탈락한 동물은 심한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가 도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육사들은 사물에 잠긴 동물들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새 짝을 찾아주거나 새 환경을 만들어 준 뒤 경쟁자와 다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등 갖은 애를 쓰지만 예산이 부족해 쉽지 않다.

/이종행기자 gole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2 해질 19:22 해돋이 22:15 해질 10:43

오후에 비 그쳐요
오전까지 광주·전남에 10~50mm, 남해안에 30~70mm 비 오다가 오후부터 그치고 구름 많이 끼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비온뒤 21/28 보성 비온뒤 21/26 목포 비온뒤 22/26 순천 비온뒤 22/28 여수 비온뒤 22/26 영광 비온뒤 20/27 나주 비온뒤 21/28 진도 비온뒤 22/27 완도 비온뒤 22/27 전주 비온뒤 20/29 구례 비온뒤 21/28 군산 비온뒤 21/27 강진 비온뒤 22/27 남원 비온뒤 20/28 해남 비온뒤 22/27 흑산도 비온뒤 21/25 장성 비온뒤 19/27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남~북동	0.5~0.5	북~북동	0.5~0.5
남해 서부	남~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서부	남~북동	1.0~2.0	북~북동	1.0~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5:23	10:25
여수	17:48	22:43
	12:16	05:55
	23:52	18:08

◇주간 날씨

날짜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날씨	☀	☁	☁	☁	☀	☀	☀
기온	22/30	21/27	22/25	22/26	21/27	21/28	21/28

◇생활지수

- 식중독: 47
- 운동: 10
- 빨래: 20

성적제한 폐지, 승덕고도 자사고 반납할 듯

자사고 입학전형 요강 교육감 직권공고...학교·학부모 반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승덕고도 승원고와 마찬가지로 내년 신입생 모집에서 성적 제한이 폐지됐다. 따라서 승덕고도 자사고를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이 승덕고 교육청의 지시를 거부함에 따라 성적제한 폐지를 담은 신입생 전형요강을 교육감 직권으로 공고했기 때문이다. 승원고와 승덕고 모두 자사고의 메리트

인 '성적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사실상 광주에서는 자사고가 사라지게 됐다. 특히 승덕고의 경우 교육감 직권으로 공고함에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은 물론 법리 논쟁에 휘말리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오후 7시에 2015학년도 승덕고 신입생 전형요강을 교육감 직권으로 공고했다.

승덕고 전형요강은 기존 성적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추천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승원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이는 승덕고가 법적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전형요강을 공고하지 않음에 따라 교육감이 직권으로 공고했다. 승덕고는 지난 4년 간 '중학 내신 상위 30%'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뒤 신청자에 한해 추천 방식으로 선발해 왔다. 하지만

내년 신입생은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한층 강화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선발하겠다고 요청했다. 성적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되 1단계에서 내신(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총 5개 과목) 180 만점에 출결(감점)을 합산해 개별점수를 매긴 뒤 성적순으로 정원의 1.5배(450명 안팎)를 선발한다. 이어 2단계에서 1단계 점수에서 면접(20점)을 더해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에 맞서 광주시교육청은 기존 전형보다 대폭 완화된 성적제한 폐지를 꺼내들었고, 승덕고가 이를 거부하자 직권으로 공고한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편파 수사 의혹' 현직 경찰간부 음독 사망

편파 수사 의혹을 받아온 현직 경찰 간부가 음독 자살했다. 14일 오후 1시10분경 광주시 북구 신용동 모 아파트에 사는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A경감의 집 안방에서 극약을 마시

고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A경감은 광주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경감은 지난해 화물차 불법주차 수사 과정에서 편파수사와 금품수수를 했다는

진정을 받아 내사를 받는 등 의혹에 휘말려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광주경찰청은 금품수사와 편파수사 부분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에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시한 뒤 50대 화물운수업자 2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

의로 구속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부각됐다. A경감은 이날 현재까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도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자 심적 부담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교사들 "부적절 언행 교감 교체해달라"

전남교육청에 탄원서 제출

순천의 한 중학교 교사들이 교감의 부적절한 언행을 문제 삼아 교체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순천 A중학교 교사 20여명이 최근 이 학교 "B교감을 교체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해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교사들은 탄원서에서 B교감이 학부모에게 식사비를 대신 내도록 하고, 장학금에 대한 사례로 "떡값"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폭언에 모욕감을 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 학교 운영도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밝혔다. 시간의 수당을 부당하게 신청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학부모들은 "체험학습과 관련한 프로그램 결정을 임의대로 하거나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교감은 "학부모들에게 항을 요구한 적이 없고, 시간외수당을 부당 신청한 사실도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은 탄원서 내용을 토대로 B교감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B교감은 지난달 순천교육지원청 조사 결과, 주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뇌물수수' 前수사관 징유

광주지방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14일 수사청탁과 함께 업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지검 전 수사관 장모(4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에게 뇌물을 준 골재채취업자 전모(54)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 수사를

하는 검찰 공무원이 돈의 유혹에 빠져 권한을 사적 이익에 행사한 범행에 비춰 엄벌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뇌물액이 1000만원에 못미치고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온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전제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사건, 인물 등에 대한 수사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모두 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관광공사
오시아노 대중골프장

www.oceanocc.co.kr

이제부터 반값에 골프친다

대중골프장의 저렴한 그린피를 한번더 저렴하게
골프 대중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오시아노 대중골프장 예 약 : 061)536-1000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1064

선불 할인 카드란? 일정 금액을 카드에 충전 후, 골프장 내장 시, 프론트에 카드를 제시하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할인율에 따라 할인된 금액이 카드에서 차감 됩니다.

- 선불 카드 할인표 -

충전금액	200만원	400만원	900만원
그린피 할인율	기명1인 40%	기명1인 50%	무기명1팀(전원) 40%
주중/주말			

공통 혜택

- 캐디 선택제
- 골프장 내장시 카트비, 할인된 그린피
- 가 충전 금액에서 차감
- 1일 18홀 적용

- 요금 안내 -

구분	금액	비고	
입장료	주 중	60,000	18홀 기준
	주말(공휴일)	90,000	
팀당 카트비	60,000	캐디 선택제	
팀당 캐디피	100,000		

Event 2부 내장객 9홀 추가시 주중3만원/주말4만5천원 (카트료 포함)

구매문의 061-536-3953